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대출자 설곳 잃어

“私債로 내몰린 대출자, ‘안전망대출’로 갈아타세요”

만기연장 등 어려운 차주 대상
대출채무 최대 2000만원 대한

6개월마다 최대 1%p 금리 혜택
성실 상환엔 최대 12%p 인하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라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연 금리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을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이하 전 대부업·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졌거

단계	신청자 조치사항	세부내용
신청접수	전화상담(권장)	▶ 1397(서민금융 통합콜센터) 사전 문의 권장 ▶ 접수처 방문: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전국 13개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접수	보증확인서 수령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심사 통과시 보증서 발급
신청접수	은행 창구 방문 및 대출	▶ 신청서 제출시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안전망 대출 실행

자료/ 금융위원회

나, 고금리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 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

를 대환한다.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다. 다만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24%로 대출받은 차주도 2년 이상

성실상환 하면 20% 이하 중금리대 대출로 진입하고 최대 1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되며,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조원 공급된다. 당국은 향후 자금 수요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공급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신청은 전국 15개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한다.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 대출이 가능하면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다.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보증서의 효력기간

인 30일 이내로 지정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특히 대출 연체 차주, 채무불이행 차주, 회생·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 대출도 거절된 신청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기초생활수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자금여로를 최대한 열어줄 것”이라며 “이 제도는 대면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 가능하므로 안전망 대출 신청 시 가급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신한금융, 당기순익 2.9조... 전년비 5.2%↑

신한금융지주, 2017 실적 발표

4분기 당기순익 전분기보다 74% ↓
이자이익 7.8조... 4년 연속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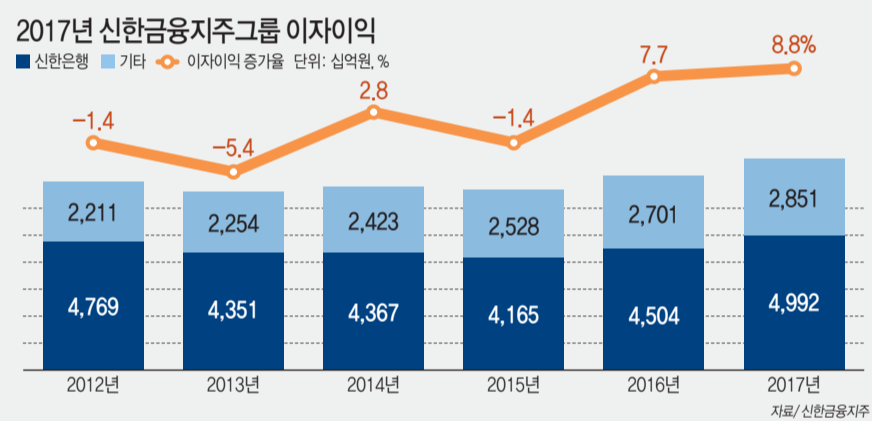
신한금융지주가 업계의 예상과 달리 순익 ‘3조 클럽’ 입성을 아쉽게 놓쳤다. 그러나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신한금융은 7일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그룹 순이익이 전년 대비 5.2%(1431억원) 증가한 2조917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74.1% 감소한 2115억원을 기록했다. 대규모 연말 희망퇴직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추가 총당금 적립 등 일회성비용의 영향이다.

안정적인 자산 성장과 순이자마진(NIM)이 지속 개선되면서 은행 부문의 이자이익이 증가했다. 그룹 이자이익은 7조 8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4분기 연속 그룹 이자이익이 성장했다.

4분기 은행의 NIM은 수익성 기반의 질적 성장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운용을



통해 전분기 대비 2bp(1bp=0.01%포인트) 개선된 1.58%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7bp 상승한 1.56%다. 신한금융투자,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 그룹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3710억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다.

그룹 비이자 부문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수료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문과 펀드·뱅크 부문에서의 팔목활만한 성장으로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는 등 다방면의 실적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 핵심시장에서 수

익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 결과 은행 글로벌 사업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8%(553억원) 증가한 2350억원을 나타냈다.

그룹 및 은행의 고정이여신에 대한 부실채권(NPL)비율은 각각 0.62%, 0.5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 NPL커버리지비율 역시 보수적인 총당금 정책 지속으로 132.5%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및 카드의 연체율 또한 0.23%, 1.27%로 전년 대비 각각 5bp, 16bp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채신화 기자

소상공인·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KEB하나은행, 행복나눔 프로그램

KEB하나은행은 8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일자리창출의 생산적 기업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전담지원팀 신설 및 전 영업점 상담 데스크 운영 ▲세무·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부담으로 ‘최저임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의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4대 보험 납부금 지원’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각종 은행 이용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및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지원팀 신설은 물론 전 영업점에 상담 안내 데스크를 운영,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팀을 활용한 세무·노무·회계 전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호 기자 kmh@

BNK부산은행, 연 6% 부동산펀드 판매

이익금 3개월마다 연결계좌로 지급

BNK부산은행은 평균 연 6% 수준의 ‘파인아시아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재간접)’ 펀드를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강릉 힐플러스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로 BNK부산은행이 BNK투자증권과 협업해 전년도 출시한 서울 상당 힐플러스(남현점) 투자 펀드에 이은 두 번째 상품이다.

힐플러스 강릉점은 강릉시 내 중심상업지구인 금학동과 옥천오거리에 인접해 유동인구, 입지여건 등 고려 시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향후 펀드 매각시점인 3년 뒤에는 14년의 책임임차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각주인이 가능해 매각에 대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파인아시아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재간접)’는 선취판매수수료는 1.0%, 총보수는 연 0.44% 수준이다. 매 3개월마다 펀드의 이익금이 연결계좌로 지급되며 펀드 만기일까지 중도환매는 불가하다.



BNK부산은행 본점.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김정훈 WM사업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펀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열사인 BNK투자증권과 함께 우량한 투자상품을 발굴해 고객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빗썸, 거래기능 개선... 모바일 서비스 개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모바일 거래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환경과 차트 등 거래 기능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튜토리얼(안내) 페이지에서는 달라진 모바일 서비스 사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또 거래소 이용이 처음인 회원들을 위해 ‘매수·매도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뉴 바도 개선됐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빗썸캐시 정보를 매뉴 바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메뉴 바로가기 기능은 물론, 전체 메뉴 접근도 한층 쉬워졌다.

특히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 정보와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신속하게 매매



를 할 수 있도록 거래 화면을 대폭 개선했다. 매수·매도 주문량, 거래량, 거래대금, 당일 고가·저가 등 정보를 모두 한 화면에 담았다. 또 간편 매수, 현재가·시장이전 액 매도 등 매매 기능도 추가했다.

차트는 PC 버전에 이미 적용된 것과 같은 ‘트레이딩뷰’(TradingView) 기반의 6가지 차트와 60가지 보조지표를 제공

초보회원 위한 ‘연습하기’ 서비스
거래정보 신속파악위한 화면 개선

한다. 실시간 데이터 반영 주기를 기존 10분에 1회에서 약 1~2초에 1회로 크게 단축했으며, 차트 데이터 축적도 기존 최대 10분에서 1분으로 줄였다.

빗썸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 개편을 통해 거래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과감하게 빼고, 필요한 정보들만 한 화면에 통합적으로 담아 거래자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빗썸 모바일 앱은 지난달 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금융 카테고리 인기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빗썸의 모바일 앱 사용자 수는 지난해 9월 6860명에서 10월 9만5000명, 11월 30만2000명, 12월 146만7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